지역 소식통

부안군, 부안기네스 '매력부안 1번지' 공모

부안군이 지역의 숨은 자랑거리를 발굴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매력부안 1번지 공모'를 추진하고 대상자 공모접수에 나섰다.

매력부안 1번지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번뜩이고 독창적인 지역의 각종기록'이라는 소주제로 부안에서만 볼 수 있거나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과 동네의 자랑거리, 자연, 기술 및 재능 등 4개의 분야에 대해 6월 30일까지 군청 홍보팀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상반기 접수된 대상자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매력부안 1번지'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자에 대해 '매력부안 1번지' 인증서와 함께 추후 발간 될 '매력부안 1번지' 책자와 군정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부안군에서는 새로운 지역의 홍보자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농기센터-SRC '올데이 핫도그' 5종 출시

신학기 개학과 함께 고창산 보리 등으로 만든 핫도그가 대한민국 10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농업기술센터와 지역 식품업체 SRC가 협업해 '올데이 핫도그' 5종을 출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핫도그는 청정지역 고창군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보리와 새싹보리, 고구마를 분말로 가공해 반죽에 사용한다.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신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학교급식에 디저트 메뉴로 선보여졌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려는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의 호평을 얻으며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고창농산물을 홍보하는 효자상품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특산 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2019~2020)'을 추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사공원 레포츠 숲길 조성

시기동-초산동-신월동 연결하는 3.8km
총사업비 15억원 투입, 오는 12월 완공 예정

정읍시가 시민의 힐링 공간인 정읍사공원과 아양사랑숲을 연계한 정읍사공원 레포츠 숲길을 조성한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예산 3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구역 129ha를 매입 완료했다.

이중 정읍사공원(아양산) 구역은 총면적 115ha 중 86ha를 매입 완료해, 기존 시유지 22ha를 포함 93%를 확보했다. 정읍사공원 레포츠 숲길 조성사업은 위 매입부지를 활용해 시기동-초산동-신월동을 연결하는 연장거리 3.8km의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3월 말 착공을 시작으로 12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레포츠 숲길은 산책로의 기능은 물론, 산악형 루지 등의 다채로운 산림 레포츠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편백나무와 단풍나무 등이 잘 가꾸어진 아양산 내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숲놀이 체험원과 전망대, 펫파크, 자연형 캠핑장 등 힐링과 체험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천년의 기다림'을 테마로 리모델링된 정읍사공원 일원에는 대규모 도시숲인 '아양사랑숲'과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어 노약자와 어린이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돼 전문지도사의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장소는 산과 공원 등 자연공간"이라며 "숲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를 품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숨겨진 역사 인물 발굴

올해 '천재 여류 서예가 김진민' 작품전 및 학술세미나 추진

정읍시가 역사 속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정읍의 인물 선양과 가치 재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천재 여류 서예가, 김진민'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올해의 역사 인물로 선정해 업적을 기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읍의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인물전을 개최, 작품을 재조명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미술전람회 등 서예 공모전에서 높은 성과를 내며 천재 여류 서예가로 명성을 날린 태인면 출신 김진민 서예가가 대상이다.

시는 내달부터 김진민의 고향인 태인면 오리마을 입구에 고향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책자 제작과 역사유적 탐방 등의 역사 인물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9월에는 그의 생애와 작품에 관련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등의 '학술 세미나'를 추진해 역사 인물에 대해 집중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10월에는 공감플러스센터와 연지아트홀 등에서 김진민의 유물과 서예 작품 등을 전시한 작품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 시민들이 우리 고장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역 곳곳에 숨겨진 역사 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4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 동래부사 송상현'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해 43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의 전투 중 순절한 송상현을 재조명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올해의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효열·산업·공익·교육 등 8개 분야별로 1명씩 선발
올해는 추천제외대상 신설, 수상 후보자 군민 의견 수렴

부안군이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2021년 부안군민대상'을 선발하고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선발분야는 효열, 산업, 공익, 교육, 문화, 체육, 애향, 명예군민 등 8개 분야로 각 분야별 1명씩을 선발한다.

부안군민대상은 1979년에 '군민의장'으로 최초 시행돼 '으뜸군민대상'을 거쳐 현재 '부안군민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9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추천서 접수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3주)로 수상후보자는 각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부안군청 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부안군은 부안군민대상이 모든 부안군민의 귀감이 되는 영예로운 상으로서 그에 걸맞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며, 후보자가 추천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미선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추천제외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수상후보자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부안군민대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상자 결정은 추천서 접수 후 서류심사, 현지실사, 군민검증을 거쳐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군민대상 수여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추천서 서식 및 제출서류 등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580-4227) 또는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은 17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유진섭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8억6600만원 모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웃사랑 나눔 실천의 저력을 뽐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지역 내 기업과 단체, 개인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사랑의 온도탑(모금목표 대비 달성률) 온도가 220℃를 넘어섰다.

당초 목표액 3억5,5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은 8억6,600만원을 달성하는 모금 실적을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은 17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유진섭 시장에게 나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동수 회장은"펄펄 끓는 이웃사랑의 저력을 보여준 정읍시민에게 온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지향하는 만큼 기부 도시로서 꿈과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정읍시의 모금 실적은 성숙된 시민의식과 기업·기관의 '통 큰 기부'가 큰 역할을 했다.

대진대학교가 1억원의 성금을 쾌척했고 태인컨트리클럽이 5천만원, 익명을 요구한 이웃이 2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덕천초, 정우초, 내장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 창업 활동과 바자회로 모은 성금을 저금통에 담아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달라며 온정을 보내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5억7400만원 모금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이 유기상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더욱 혹독했던 지난 겨울. 군민들의 뜨거운 이웃사랑 열기를 보여줬던 고창군이 희망2021나눔캠페인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이 유기상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동수 회장은 "고창군은 매년 이웃돕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나눔과 기부활동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고창군은 '희망2021 나눔캠페인(2020년 12월01일~2021년 1월31일, 62일간)'을 펼쳐 5억7,4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지난해(4억3100만원) 대비 133%증가한 실적으로 고창군은 매년 전년 대비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 이번에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다.

특히 전북 시·군단위에서 최초로 사랑의 온도탑 설치, 고창의 기부천사를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등 일상 속에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로 매년 각계각층의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의 온도 100도를 넘긴 것은 위기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로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런 고창군민들 힘 덕분이다"며 "뜨거운 나눔실천에 함께 해주신 단체, 기업과 개인 기부자들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